

#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 도교육청,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 꿈을 심는 진로·진학 교육과정 기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일반고 교원과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나선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고 학생의 진로·적성·흥미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하고 2018년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2015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한 일반고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적성과 희망,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간 협력 등을 통한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교실닷컴) 운영, 소수학생 선택과목 운영,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예체능 실기 지도, 학교 특색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고와 대학 연계 프로그램인 이공계 청소년 학습제, 전문대학과 연계한 주말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일반

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이며 48억 3천3십만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주목해 스토리가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의 자존감 향상과 꿈을 심어주는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이 '농·생명 ICT 교육과정모듈 글로벌 현장교육'을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대만 현지에서 진행했다.

### 전주대 LINC+사업단, 농생명 인재양성 현장교육 실시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 교수)은 '농·생명 ICT 교육과정모듈 글로벌 현장교육'을 15일부터 18일까지 대만 현지에서 진행했다. 농생명ICT융합 교육과정 모듈에 참여하는 학생 14명은 대만의 농생명 및 물류무역분야 현장체험교육을 위해 대만 농수산물시장, 대형 유통마트, Taipe Kota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대만 무역 관계자 설명을 들으며 대만

의 경제, 산업, 일자리, 문화 전반을 이해하고 농생명 분야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주대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농생명ICT 융합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이번 글로벌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글로벌 취업역량도 크게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국제협력 확대로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

#### 전북대, 멕시코·칠레 대사관 주요대학 방문 네트워크 강화

전북대학교의 국제 협력이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대는 최근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는 멕시코, 칠레 등을 방문해 국제협력본부를 강화했다. 운명속 국제협력본부장 등 방문단은 15일부터 19일까지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과 문화원을 방문해 전북지역의 우수대학 등을 소개하고 최근 한류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전북지역 우수학생의 멕시코 지역 한국기업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구체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자매대학인 과나후아토 대학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추후 스페인어를 활용한 한국기업 인턴십과 취업프로그램을 확대기로 했으며, 문화원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학생의 해외 진출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8일 칠레 로스안테스대학 등 칠레지역 교류 대학을 방문해 최근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및 의약품 산업 등에 대한 교류협력 강화를 타



진하고 한국학생의 교환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9일에는 칠레 대사관을 방문하고 한국유학프로그램 설명과 대사관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다양한 기관 및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칠레지역 등 남미 지역의 농산물 기업 등에서 한국청년 일자리 확대를 모색했으며, 특히 농생명 분야 학생들의 남미취업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운명속 국제협력본부장은 "그간 거점국립대학과 사립대간 협력 강화에 대한 노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남미지역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유학생 유치와 한국학생의 신규 지역 해외진출을 강화하여글로벌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특화된 새로운 취업 일자리 창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가 매년 방학을 맞아 해외 자매결연 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는 '필링코리아(Feeling Korea)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 초청 한국문화체험 장 마련

#### 4개국 17개 대학서 160명 학생 참여 2주간 활동

겨울방학을 맞은 전북대학교가 해외 대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전북대가 매년 방학을 맞아 해외 자매결연 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는 '필링코리아(Feeling Korea) 프로그램'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북대는 21일 오후 2시 진수당 가인홀에서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을 환영식을 갖고 2주 간의 한국문화

체험 일정이 들어갔다. 올해 동계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에는 4개국 17개 대학 160명의 해외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체험 기간 동안 외국인 학생들은 오전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 문법과 기초 회화 등을 공부하고, 매일 오후에는 전주 한옥마을 일원을 돌아보며 전통혼례나 풍물체험, 도자기 만들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한다. 특히 동계 프로그램에는 겨울 대표 스포츠인 스키캠프를 진행한다. 평소 눈을 구경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와 미국 광 대학의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상해출판인쇄전과학교 학생 40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이들은 전북대 미디어센터에서 영상제작과 관련된 수업을 받고 한국

문화도 체험할 예정이다. 운명속 국제협력본부장은 "더필링코리아 프로그램은 외국 학생들에게 우리대학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자매 대학으로서의 돈독한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최근에는 대학별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리대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전 안내

#### 3월초 공고→4월 원서접수→6월 15일 필기시험 예정

전북교육청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홈페이지

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3월초 시험공고를 내고, 4월중 원서를

진행한 뒤 6월 15일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7월 말 면접시험을 거쳐 8월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발 분야 및 인원,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오는 3월 중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전화(063-239-3114)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니 수험생들은 추후 세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